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봇물...한달 새 762억 신청

1600건 이상 상담...올해 정책자금 4400억원 운영 시설 700억·운전 3200억·특별경영안정 500억 등

전남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비상계엄, 탄핵,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 내수 침체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두려는 중소기업들이 이자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한 정책자금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중기일자리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500억원 증액한 4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월 2일부터 160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40일만에 762억원 규모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중기일자리진흥원은 올해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속도를 높인 결과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기일자리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공장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700억원, 2.5%~3.9%, 저리용자)과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3200억원, 1.1%~2.5%, 이자지원), 저신용 및 고금리상용 이용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500억원, 3.9%, 저리용자) 등으로 나뉜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대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기존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0.4%의 추가이자 캐시백을 받으면 최대 2.9%까지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희 중기일자리진흥원 원장은 "올해는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기를 전년보다 1주일 이상 앞당겨 더 많은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도내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신청희망 기업은 중기일자리진흥원 자금 시스템(www.jinfund.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사안녕·만사형통 기원 정월대보름을 맞아 11일 오후 담양군 대전면 병풍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올 한해 무사안녕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달집을 태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올해 첫 투자진흥지구 투자협약 체결 제이크로커스 본사 동구로 이전...지역인력 채용 등 나서

광주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이크로커스㈜와 올해 첫 투자진흥지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제이크로커스 장동욱 대표와 김영준 부대표,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제이크로커스는 본사를 서울에서 광주시 동구로 이전하고, 문화콘텐츠 전시, 팝업스토어 공간 구축, 지역인력 채용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투자 관련 행정적 서비스, 투자 특전(인센티브), 문화콘텐츠 기반시설(인프라) 등 기업 정

작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제이크로커스는 문화 지식재산권(IP) 기반 전시와 팬상품(굿즈) 개발, 실감콘텐츠 개발을 주력하는 기업으로, 광주 동구 장동으로 본사를 이전해 지역작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전시와 오감체험형 아트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

자진흥지구를 통해 풍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장점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최근 4년동안 20개사의 문화콘텐츠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투자실행과 관련한 제반 행정적 서비스, 지역 내 문화콘텐츠관련 기반시설 활용, 조세감면·보조금 지원 등 투자 특전(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제이크로커스 본사 이전은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지원, 인력양성, 기반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과·배·단감·뽕은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농축협·원에농협 28일까지 전남도, 보험료 90% 지원

전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경영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수 4종을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인피해(동상해)와 햇볕 쬐(일소)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수 4종의 보장방식이 기존에 열매를 숙여내는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 보장, 적과 후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수확기까지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도록 확대됐다.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보험료율은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9개

에서 15개로 세분화했다. 사과, 배의 경우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시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에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농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과수 4종에 대해 7093농가가 5089ha 면적에 대해 보험을 가입, 보험금 151억원을 지급받아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100만원 저축·100만원 지원 광주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광주시는 12일 "공개 추첨을 통해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살)통장' 제10기 참여자 6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 4901명이 신청해 평균 7.9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13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83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공개 추첨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에 활용됐다. 모든 과정을 광주청년센터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gjyouthcenter)에서 생중계해 진행 과정을 확인하게 했다.

사업 참여자들은 약정서 작성 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추가 적립금 1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만기금을 12월에 수령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소규모 한우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전남도가 산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다.

전남도는 소규모 한우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60마리 이하 농가에 사료비 인상액 108만원 중 50%인 54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전남 전체 한우 사육 1만6000여 농가 중 1만3000여 농가(81%)가 혜택 대상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가격 상승이 장기

화한데 반해 산지 한우가격은 하락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예비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문의 후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